

“승부수 통했다” 세븐틴, ‘독:fear’ 로 보여준 성장

정규 3집 ‘언 오드’(An Ode) 컴백

우지 프로듀싱에 대부분 멤버 작사 참여

그룹 세븐틴이 ‘독:fear’로 승부수를 던졌다. 그 결과 음악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팀의 성장을 증명해냈다. 세븐틴은 지난 16일 정규 3집 ‘언 오드’(An Ode)를 발매했다. 2017년 2집 ‘틴, 에이지’를 발매한 뒤 약 2년 만에 발매하는 정규 앨범이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세븐틴은 ‘언 오드’에 공을 들였다. 어느 앨범처럼 우지가 주도적으로 프로듀싱에 참여해 전곡을 작곡곡으로 채웠으며 에스콰스 버논, 민규, 원우, 디에이, 호시, 디노 등 대부분의 멤버들이 작사에 참여해 세븐틴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앨범에 녹여냈다.

타이틀곡 ‘독:fear’는 섹시한 분위기의 R&B다. 묵직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이 곡은 세븐틴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물론 ‘퍼포먼스 장인’ 세븐틴 특유의 매력도 잃지 않았다. 이들은 세련된 군무로 ‘독:fear’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일 수 있게 한다. 덕분에 이들의 무대는 완성형에 가깝다. 이들의 음악은 대중에도 통했다. 세븐틴은 정규 3집 ‘언 오드’가 70만863장(09.16~09.22 한터 차트 집계 기준)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작 ‘유 메이드 마이 단’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준 것은 물론, 국내 음원 차트와



해의 아이튠즈 K-POP 앨범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하반기 가요계를 장악하고 있다. 세븐틴은 갈수록 성장하는 아티스트라 더 반갑다. 지난 2015년 처음 데뷔한 이들은 ‘아진다’ - ‘만세’ - ‘예쁘다’ 등 일명 ‘소년 3부작’으로 매력을 발산, ‘청량돌’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세븐틴

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아주 NICE’, ‘뽀뽀’, ‘박수’ 등을 통해 박력 넘치는 퍼포먼스에도 강하다는 걸 증명해냈다. 더불어 ‘울고 싶지 않아’, ‘고맙다’, ‘홀’으로 서정적인 곡도 시도하며 할 수 있는 음악의 장르를 확장했다. ‘독:fear’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곡이다. ‘다크’, ‘섹시함’ 등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콘셉트를 시도한 것. 이들의 시그니처 이미지와도 같았던 청량미를 지우고 성숙함을 내세웠다는 점이 눈에 띈다. 확 달라진 세븐틴은 성장에 대한 이들의 치열한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앞서 진행된 ‘언 오드’ 쇼케이

스에서 멤버들은 “이번 앨범을 우리의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독기를 품고 준비했다. 만족스럽지만 앨범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븐틴은 음악으로, 퍼포먼스로, 콘셉트로 한층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들의 근거 있는 자신감과 승부수는 결국 통했다. 세븐틴 스스로 증명한 성장이다.

KCTV광주방송, ‘스마트한 TV보기’ 본격

‘사용자 맞춤’ UI개편, AI 음성 리모컨 서비스 지원
영·유아 전용 키즈모드 제공, 200개 Full HD채널 확대



KCTV광주방송이 첨단 디지털미디어시대에 맞춰 ‘스마트한 TV보기’를 위해 2년여에 걸쳐 진행한DMC(Digital Media Center) 개편 작업을 점검하고 있다.

KCTV광주방송은 첨단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발맞춰 클라우드 UI(User Interface) 개편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 ‘스마트한 TV보기’를 극대화한다고 26일

밝혔다. KCTV광주방송은 보다 직관적인 편리함과 신속한 반응으로 고객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2년여에 걸쳐 DMC(Digital Media

Center) 개편작업을 진행했다. 시청자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UI를 통해 관련 단어 하나만으로 검색할 수 있는 VOD 서비스, 영유아 전용 콘텐츠로만 제공되는 키즈모드 선택, 빅 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맞춤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스마트 TV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성반응 인공지능(AI) 리모컨으로 3초 이내에 채널 이동과 음량 조절, 원하는 영화와 드라마 선택이 가능한 서비스(개별 추가신청)도 제공한다. 음악방송 30개 채널을 포함한 Full HD급의 200개 채널을 확대 제공해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 폭도 극대화했다. KCTV광주방송은 앞으로 단체가입 고객 전용 서비스인 CUG(Closed User Group)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용훈 대표이사는 “지역 시청자와 가입고객이 보다 더 스마트하게 TV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서비스 확대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차은우 “‘구해령’ 아쉬움 남지만 많이 배워...더 성장할 것”



배우 차은우가 ‘신입사관 구해령’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차은우는 26일 MBC 수목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극본 김호수/연출 강일수, 현현희)는 최종회 방영을 앞두고 소속사 판타지오를 통해 종영소감을 전했다. 차은우는 “처음 시놉시스와 대본을 보면서 ‘도원대군 이림’을 상상하고 설□던 때가 잊고갈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인사의 시간이 왔다”고 이림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이어 “‘이림’이라는 캐릭터가 애뜻하고 특별했던 만큼 이림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싶었다”며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있지만, ‘이림’이란 인물이 시청자들에게 공감 받고 사

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림을 만나 행복했던 기억과 따뜻한 추억은 나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고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또 “더운 여름날 같이 땀 흘려가면서, 울고 웃으며 소중한 추억을 함께한 감독님 작가님 스태프분들을 비롯한 우리 배우 선배님들 정말 너무 감사하다”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고 6개월여 동안 동고동락한 ‘신입사관 구해령’ 팀에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 차은우는 “‘신입사관 구해령’이란 작품을 저에게 많은 것을 남겨 주었다. 작품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운 것들이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며 “모든 면에 서툰데 이림이 자신의 진심을 발견하고 이해하면서 성장해나간 모습처럼 저도 하나하나 발전하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달라”고 작품을 마친 애뜻한

소감을 진솔하게 전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신입사관 구해령’을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힘과 울타리가 되어준 우리 아로하(아스트로 팬클럽) 너무 고맙습니다”라며 드라마를 사랑한 시청자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차은우는 ‘신입사관 구해령’에서 궁궐에 갇혀 사는 고독한 모태 솔로 왕자이자 궁 밖에서는 인기 절정의 연예 소설가인 도원대군 이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구해령(신세경)을 만난 후 궁궐 밖 세상과 마주하면서 진짜 왕자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차분하게 그려며 시선을 모았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로맨스 공식을 뒤집는 새로운 매력의 신개념 왕자 이림과 회가 거듭될수록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한 차은우는 구해령을 향한 거침없는 직진과 귀여운 연하남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로맨스 판타지를 선사, 설렘 지수를 높이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